

“국민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_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정부,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이 그 뜻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_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

‘현대판 흑사병’으로 묘사되며 에이즈의 존재가 알려진 지도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 후 에이즈와 관련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으며, 에이즈를 유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1980년대 초반의
과도한 공포 분위기에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가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_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안종주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우리사회의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인권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인식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책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에게 올바른 기준이 되길 바란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에이즈,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에이즈,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발간을 축하하며...

_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는 우리모두의 과제이다.
정부,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이 그 뜻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_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

현대판 흑사병으로 묘사되며 에이즈의 존재가 알려진 지도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 후 에이즈와 관련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으며
에이즈를 유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1980년대 초반의 과도한 공포 분위기에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가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_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안종주

에이즈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우리 사회의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인권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일반 국민과 보건 의료인의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책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에게 올바른 기준이 되길 바란다.

_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홍보연구원 이윤재 석지혜

빨리 이런 책이 나와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책이 발간되어 다행이
다. 처음엔 만큼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큰 결실로 돌아오리라 기대한다.
이 책이 작은 불씨가 되어 HIV감염인/AIDS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여 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에이즈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에이즈는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고, 치료제(바이러스 억제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에이즈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에이즈 감염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써 국내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보면 HIV감염의 확산은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부담, 가정의 해체와 고아의 증가, 의료비 부담의 가중 등 커다란 손실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이즈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학력의 차이, 빈부의 차이,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HIV감염인/AIDS환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언론은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중요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힘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며, 친근하게도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감염인이 인권을 보호받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와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를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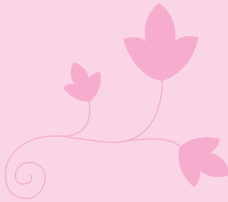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책이 에이즈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편견과 차별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 10

질병관리본부장 오 대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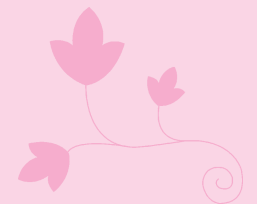
contents

	02	『언론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발간을 축하하며..
	04	머리말
들어가기 전에	10	[찾아보기] 용어해설
	15	[이해돕기] 용어안내
I. 에이즈 길라잡이	18	1. HIV와 AIDS
	20	2. HIV/AIDS 발생현황
	24	3. HIV 감염경로
	28	4. HIV/AIDS 증상과 검사
	33	5. HIV/AIDS의 치료
	35	6. 에이즈 예방수칙
	38	7. 국가 에이즈 관리와 예방활동
II. 언론보도 권고기준	44	1.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
	46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
	48	3. 에이즈 취재보도 사례
	64	4. 권고기준과 세부내용
	72	5. Media Tip
부록	32	HIV/ADS 검진체계도
	40	HIV/ADS 관리행정 체계도
	61	이런 기사 어떨까요?
	76	잘못 알고 있던 에이즈 상식
	78	그동안 궁금했던 에이즈 이야기
	82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106	에이즈 즐겨찾기



“ 들어가기 전에

- ▶▶ [찾아보기] _ 용어해설
- ▶▶ [이해돕기] _ 용어안내



■ ■ ■ ■ * A B C 순 서 ■ ■ ■ ■

용어
해설

+ AIDS

AIDS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한다. 에이즈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정상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6주~12주 정도가 지나야만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으며,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로 진단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거의 수년 내에 사망하게 된다.

+ AIDS환자

HIV가 인체에 침입하여 세포면역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AIDS환자 판정기준에 속하는 특정한 기회질환이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 HIV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이다.

+ HIV-1과 HIV-2

HIV는 우리가 흔히 HIV라 칭하는 HIV-1과 HIV의 두 번째 형태인 HIV-2로 구분되며, HIV-2에 감염될 경우 증상이 덜 심각하긴 하지만 두 바이러스 모두 면역체계를 포함한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손상시켜 기회감염에 쉽게 노출시킨다.

+ HIV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해 보이거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으며 AIDS환자로 이행되기 이전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 ■ * ㄱ ㄴ ㄷ 순 서 ■ ■ ■ ■

+ 감염인 쉼터

감염인 쉼터는 입원치료 후 영양과 섭생이 필요하거나 항바이러스제의 투약을 시작하여 부작용 등 약의 적응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도움을 받을 지지그룹이 없는 홀로 사는 감염인이 장애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 재활 또는 회복기에 있는 경우, 경제력이 없는 감염인이 일정기간 직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재적응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 체류할 수 있는 숙식제공의 생활공동체이다.

+ 기회감염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즉, 기회를 보아 감염증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며, ‘2차감염’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 결핵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전염병으로, 보통 균이 침범하는 장기는 폐(lung)이지만 다른 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에이

즈 관련 기회질환의 하나로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결핵과 HIV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결핵은 에이즈 환자의 생존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 무증상기

감염인에 따라 다르지만 HIV에 최초로 감염된 후 짧은 급성증후군(초기증상)을 거친 다음, 오랜 기간(평균10년)동안의 무증상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HIV에 의해 면역기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타인에게 전염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후 면역저하가 심해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기회감염)들이 생기고 비로소 AIDS라 부르게 된다.

+ 상담소

성병, 에이즈 감염 취약집단인 동성애자와 검진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감염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로 에이즈를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여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 동성애자상담소 2개소, 일반인상담소 11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상담소 중 특히 '자발적인 HIV 검사'를 위한 검진상담소(VCT : Voluntary Counseling and Testing)는 상담뿐 아니라 에이즈 익명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와 지지, 취약집단의 예방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성병건강진단대상자라고도 하며,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생분야중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한 자를 말한다.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여자 종업원, 기타성병매개우려자 / 또는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에이즈 증상

에이즈의 임상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뉘볼 수 있다.

- 초기증상 : HIV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정도)에게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 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으로는 HIV감염 여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

- 질병진행 시 : 초기증상 및 무증상기(평균10년)를 거쳐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면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대상포진, 임파선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폐렴 등 기회감염이나 임파종 등 기회암이 발현한다.

-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감염 후 대부분 10년 내에 50% 이상이 AIDS환자로 발병되며, 환자로 진전되어서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거의 수년 내에 사망한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의 본인부담분을 보건소에 신청한다. 현재 각테일요법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만약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사용되도록 한다.

+ 카테일요법

세 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법으로 삼제병용요법이라고도 하며, 한 가지 약제로 치료할 경우에는 수주 후에 이 약제에 내성을 가진 변종바이러스가 생겨 치료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된 방법으로 현재까지 에이즈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 2주일 후 몸 안에서 바이러스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약 8주가 지나면 검출한계(검사로 알 수 있는 바이러스의 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즉 바이러스가 혈중에 얼마 있는지 측정했는데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 안의 바이러스를 전부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기회감염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감소했다가도 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다시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고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항체미검출기간

항체미검출기간(Window Period)은 일반적으로 HIV감염 후 6주~12주 내로, 이 기간에 에이즈 검사를 할 경우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항체미검출기간 이후에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는 위의 용어해설과 같은 '정확한 의학용어' 또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빠른 이해를 돕고 속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용어
안내

+ 에이즈

= AIDS의 한글표기(질환명)

+ 성접촉

= 이성·동성간을 막론하고 질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HIV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정액과 질 분비물 등의 체액과 혈액 등이 점막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모든 성적행위



“ I. 에이즈 길라잡이

- 
1. HIV와 AIDS
 2. HIV/AIDS 발생현황
 3. HIV 감염경로
 4. HIV/AIDS 증상과 검사
 5. HIV/AIDS의 치료
 6. 에이즈 예방수칙
 7. 국가 에이즈 관리와 예방 활동

1 HIV와 AIDS



HIV

- HIV : Human(인체) Immunodeficiency(면역결핍) Virus(바이러스)
 -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
 -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찾아내어 면역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면서 면역세포를 파괴
 - HIV는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의 HIV가 존재
 - 주로 성관계나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감염된 산모의 임신·출산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

AIDS

- AIDS :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손상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과 피부암 등 악성종양 등이 생겨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

TOPIC

++++++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합니다. HIV에 감염되면 인체면역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수년이 지나면 면역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감염증이나 질환에 걸리게 되어 비로소 AIDS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치료한다면 AIDS환자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TIP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차이

- HIV감염인 : 몸 속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
- AIDS환자 : HIV감염인 중 오랜 잠복기간 후 면역기능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질병 등 기회 감염이 나타나는 사람

HIV감염인 중 일부가 AIDS환자입니다. 감염되었다고 바로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HIV감염인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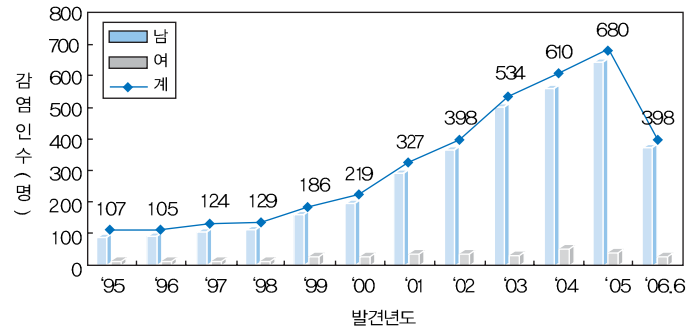
2 HIV/AIDS 발생현황

2-1 국내 HIV/AIDS 발생현황

■ 국내 HIV/AIDS 발생현황

- 2006년 6월 말까지 발견된 내국인 누적 감염인수 : 4,227명
 - 이중 773명이 사망하여 현재 3,454명이 생존
 - 누적 감염인 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경우는 3,561명이며, 이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3,508명(98.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자료〉 연도별 HIV/AIDS발견현황 (1995~2006.6)



- 감염인 성별 : 남성 3,842명, 여성 385명(남성이 여성의 약 10배)

- 감염경로 : 감염경로가 밝혀진 3,561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 3,508명 (98.5%)
 - 이성간 성접촉 2,131명, 동성간 성접촉 1,377명

2-2 2006년 내국인 신규 HIV/AIDS 발생 현황(2006.1~6)

2006년 내국인 신규 HIV/AIDS 성별·연령별 분포(2006.1~6)

연령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398	100.0	370	100.0	28	100.0
0-9	0	0.0	0	0.0	0	0.0
10-14	0	0.0	0	0.0	0	0.0
15-19	7	1.8	7	1.9	0	0.0
20-29	73	18.3	68	18.4	5	17.9
30-39	133	33.4	125	33.8	8	28.6
40-49	96	24.1	90	24.3	6	21.4
50-59	55	13.8	49	13.2	6	21.4
60세이상	34	8.6	31	8.4	3	10.7

※ 발견당시 연령임(만 연령)

내국인 신규 HIV/AIDS 감염경로별 분포(2006.1~6)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202	100.0	184	100.0	18	100.0
이성간 성접촉	118	58.4	100	54.3	18	100.0
동성간 성접촉	84	41.6	84	45.7	0	0.0

*감염경로가 밝혀진 202명에 대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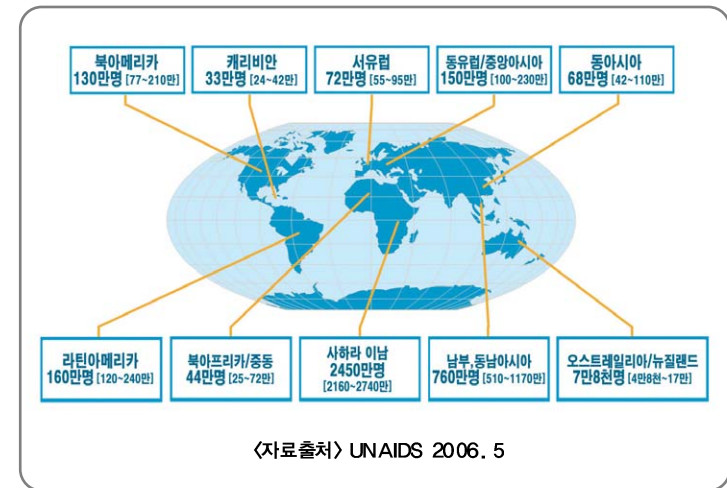
HIV/AIDS 감염경로별 누적분포현황(1985~2006.6)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3,561	100.0	3,222	100.0	339	100.0
이성간 성접촉	2,131	59.8	1,801	55.9	330	97.3
동성간 성접촉	1,377	38.7	1,377	42.7	0	0.0
수혈/혈액제제						
혈액제제	17	0.5	17	0.5	0	0.0
국내수혈	16	0.4	11	0.3	5	1.5
국외수혈	13	0.4	12	0.4	1	0.3
수직감염	5	0.1	2	0.1	3	0.9
마약사용자	2	0.1	2	0.1	0	0.0

※ 감염경로가 밝혀진 3,561명에 대한 통계임(기타, 무응답 등은 제외)

※ 국내수혈 : 현혈액 모두 HIV 선별검사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임

2-3 세계 HIV/AIDS 발생현황

- 전 세계적으로 약 3천8백만 명이 HIV에 감염되어 살아가고 있음
 - 성인 : 3,630만 명
 - 여성 : 1,730만 명
 - 15세 이하 어린이 : 230만 명
- 2005년 한 해 동안 280만 명 사망, 약 410만 명의 새로운 HIV감염인 발생
 - 에이즈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
- 전 세계 HIV/AIDS 발생현황



3 HIV 감염경로



3-1 감염되는 경우

■ 성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경로	▶ HIV는 성행위 중 감염된 사람에게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 몸 안으로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혈액 등이 들어감으로써 감염 ▶ HIV는 정액과 자궁경부, 질 내에서 발견되며 성병에 의한 염증 소견이나 생식기 점막의 궤양,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잘 전파됨 ▶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질 성교, 구강성교 등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음
감염확률	▶ 감염인과 한 번의 성접촉으로 HIV에 감염될 확률 : 0.1~1%
감염분포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파경로 ▶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HIV감염인의 98%정도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성접촉이 HIV 확산에 큰 비중을 차지
특징	▶ 유럽, 미국 등지에서 동성애(Homosexuality)에 의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간의 성접촉(Heterosexuality)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임 ▶ 최근 경향은 이성간 성접촉이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

■ 감염된 혈액의 수혈

전파경로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을 받거나 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을 투여 받는 경우에 감염 ▶ 전혈, 농축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혈장 등의 혈액제제를 수혈할 때 역시 HIV의 전파 가능성이 높음
감염확률	▶ 감염된 혈액 수혈 시 감염될 확률 : 95~100%
감염분포	▶ 근래에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하여 철저한 감염여부 검사(HIV선험검사 및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혈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음(빈도수는 200만 명당 한건 정도로 아주 미미함)
특징	▶ 감미글로불린,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혈장 추출 B형 간염백신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

■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전파경로	▶ 정맥주사 방법으로 마약을 남용하는 마약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오염된 바늘을 통해 HIV가 전파될 수 있음
감염확률	▶ 감염인과 주사바늘 공동사용 시 감염될 확률 : 0.5~1%
감염분포	▶ 현재 국내는 2건의 사례 보고가 있음
특징	▶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주사기의 구입이 가능하고 마약주사기 사용자가 적어 주사기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전파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보고됨

수직감염

전파경로	▶ 임신 중 태반을 통해 감염되거나, 분만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 ▶ 초유와 모유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감염된 산모는 수유를 금해야 함
감염확률	▶ 수직감염확률 : 25~30%(개인차는 있으나, 예방조치 시 평균 감염률 2~10%)
감염분포	▶ 감염된 산모로부터 아기에 전파되는 경우 : 세계적으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HIV감염 중 90%가 수직감염
특징	▶ 에이즈 증상이 있는 모체 또는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산모에게서 전파가 잘 되며 임신 중 HIV에 감염된 산모는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태아 감염이 쉬움 ▶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예방요법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음

TIP

HIV 감염확률

감염혈액에 오염된 주사기에 찔렸을 경우의 감염 확률은 B형간염이 22~30%, C형간염이 2~5%, HIV가 0.3%입니다. 또한 HIV가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입니다. 이처럼 HIV는 다른 질병에 비해 감염확률이 낮은 편이고 일상생활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지만, 성관계가 가장 많은 감염분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단 한 번의 경우로도 감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이즈는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3-2 감염이 되지 않는 경우

HIV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 감염인과 식기나 컵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화장실 변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침구류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피부접촉이나 포옹, 가벼운 키스를 할 때
- AIDS환자를 간병할 때
-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구토물로 인해
- 감염인과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사용할 때
- 모기 등 벌레 물림으로 인해
- 감염인과 함께 운동(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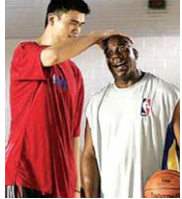
괜찮아요!

TOPIC

〈매직존슨과 야오밍의 에이즈예방 광고 이야기〉

HIV에 감염되었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NBA 농구스타 매직존슨은 2004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만리장성'야오밍과 함께 중국의 에이즈예방 공익광고를 촬영했습니다. 이 광고는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부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존슨과 야오밍은 광고 속에서 HIV감염인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농구하는 것은 물론 껴안거나 식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 스포츠 한국 2004년 12월 3일 기사 중



TIP

HIV에 감염 되지 않는 경우

감염인의 침, 눈물, 콧물, 땀, 소변, 대변으로(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HIV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HIV가 타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몸 밖에 나온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혈관이나 점막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체 밖은 HIV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4 HIV/AIDS 증상과 검사

4-1 HIV/AIDS의 증상



- HIV에 감염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 정도)에게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 감염기의 비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 무증상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도 감염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음
- 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 결핵, 구강 칸디다증,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기회감염 : 결핵과 폐렴

TIP

급성감염기의 증상

위험행위(감염) 후 1개월 이내 발열, 설사 등 독감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증세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대부분 특징적이라 할 수 없는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감염여부는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4-2 HIV 검사

■ HIV 검사의 필요성

- 외모를 통해서도 HIV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증상 등을 통해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꼭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안다면 에이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영위와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배우자, 파트너, 혹은 불특정인)에게 HIV를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음

■ HIV 검사방법

- 검사방법 : HIV의 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항체검사법,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 등이 사용됨
- HIV 항체검사법
 -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방법으로 간편하고 저렴하나 항체미검출기간 중인 혈액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는 한계가 있음

- 침입된 HIV항원에 대하여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항체생성 → 항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행위를 통한 감염 후 약 6~12주 내에 항체가 형성

※ 항체미검출기간(window period)

- : 감염된 후부터 검사를 통해 항체가 발견되기까지의 시점
- : 이 기간 중 검사를 받았다면 실제로 감염이 되었다라고 음성반응을 보일 수 있음
- : 정확한 감염여부 판단을 위해 노출행위가 있는 지 3개월 후(약12주)에 검사 요망
- : 노출행위 후 약 3개월 내(항체미검출기간)에 콘돔 없는 성관계, 헌혈 등 전파가능 행동은 삼가

■ 항원검사법

- 감염 초기 항체미검출기간이나 AIDS환자에서의 항원검출, 질병의 진단 및 치료효과 관찰, 신생아에 대한 감염진단에 주로 사용되며 헌혈 혈액에 대해 주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전자검사법

- HIV 감염의 초기진단, 신생아의 HIV 감염진단, 항바이러스제 처치 후의 모니터링, HIV-1과 HIV-2 감염구분에 유용함

■ 익명검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병 · 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검진상담소) :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 가능
-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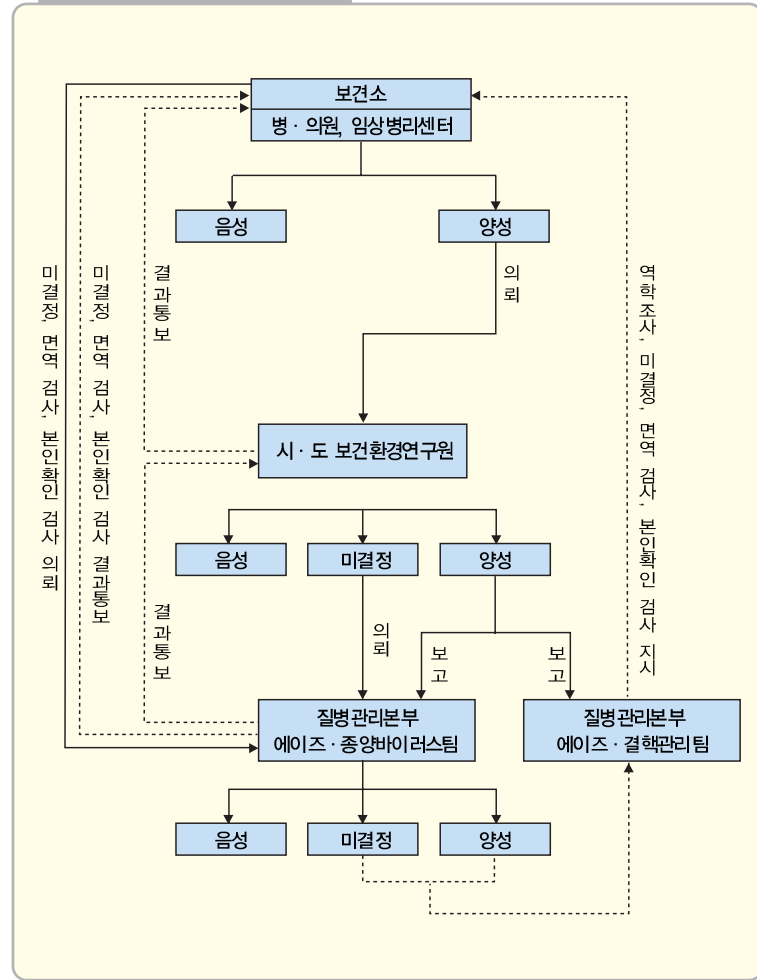
TIP

++++++

HIV 무료 익명검사

HIV 무료 익명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에 유의하여 실시합니다.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결과 통보 시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경로, 성별, 나이 등을 파악하고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진료비 지원, 에이즈 감염인 쉼터 운영 등 국가의 감염인 지원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HIV/AIDS 검진체계도



5 | 에이즈의 치료

■ 에이즈도 이제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

-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에이즈를 완치시키는 치료제나 백신은 존재하지 않음
- 1996년부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콕테일 요법(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을 도입
- 적절한 치료는 AIDS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생존기간을 연장
- 감염 후 적절한 검진과 콕테일 요법으로 20년 이상 생존 가능

TOPIC

++++++
조기에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면역검사와 진찰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에이즈는 확실한 전파경로가 있어 누구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위험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각자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 에이즈의 치료

- 콕테일 요법(삼제병용요법)
 - 세 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방법
 - 바이러스의 수치를 낮춤으로써 면역기능을 회복시키고 기회감염 예방
 -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혈중 바이러스농도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 이 점을 과신하여 약을 중단할 경

- 우 다시 바이러스가 몸속에 증식하게 됨
- HIV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역전사효소나 단백분해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 항HIV 약제사용 시 전문가의 지시 필요
- 한 가지 약제로만 치료를 할 경우, 단기간에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HIV가 생겨나면서 치료효과가 없어지게 됨
- 세 가지 약물을 동시 복용 시 : 약 2주일 후 바이러스 수 급격히 감소
 ◎ 약 8주 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 수 감소

■ 에이즈 치료약

-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
 - 지도부딘(AZT) : 전국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에서 처방
 - 디다노신(ddI), 라미부딘, 잘시타빈(ddC), 인디나비어(단백분해효소 억제제) : 일부 전문진료기관에서 구입
 - 앞으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며, 전국의 전문진료기관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6 | 에이즈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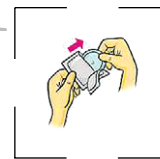


■ 나와 상대방의 건강을 위한 배려, Condom!

- 콘돔은 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법
- 올바른 콘돔사용 : HIV나 다른 병원균의 감염 예방
- 성관계를 하는 동안 콘돔을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은 거의 없음
- 에이즈는 '성접촉'이라는 확실한 감염경로가 있고, 국내의 경우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98% 이상으로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용자가 콘돔의 사용 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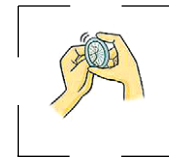
■ 올바른 콘돔 사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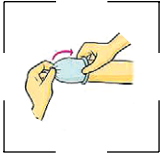
▶ 콘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포장지를 찢고 콘돔을 꺼낸다.

2



▶ 꺼낸 콘돔은 안팎을 구분하고, 콘돔 끝에 볼록한 곳(정액받이)을 잡고 비틀어 공기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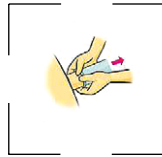
3



▶ 콘돔을 발기된 음경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풀어내려 씌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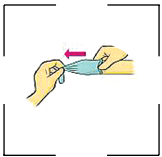


▶ 음경이 위축되기 전 콘돔의 링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서몸 밖으로 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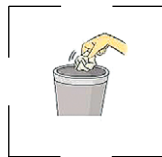


4

5



▶ 콘돔을 음경에서 벗겨낸다.



▶ 휴지통에 싸서 버린다

6

그 외 에이즈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들

- 감염경로 등 에이즈 바로 알기
-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 피하기
- 콘돔이 없을 경우 성관계 미루기

TOPIC

콘돔 사용 시 주의사항

- ▶ 콘돔은 1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콘돔은 사정 직전이 아닌 처음 삽입부터 사용해야 한다.
- ▶ 사용 전 유효기간을 살펴보고 경과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콘돔 표면이 말라있거나 끈적거리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났을 확률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사용도중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 콘돔이 치아, 반지, 손톱 등으로 찢어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 시에도 상대방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콘돔을 사용한다.
- ▶ 콘돔은 열에 약하므로 바지주머니나 자동차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보관하면 제품이 변질 될 수 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 콘돔과 윤활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베이비오일, 식용유, 로션(화장품), 바셀린 등의 지용성 윤활유는 라텍스 콘돔을 부식시키므로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TIP

해외여행을 위한 에이즈 예방 TIP

- * 콘돔을 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기
- * 주사기나 바늘 등은 공동사용하지 않기
- * 여행지에서 문신이나 침술처럼 피부를 뚫는 시술은 받지 않기
- * 혈액관리체계가 부실한 국가에서는 가급적 수혈하지 않기

7 국가 에이즈 관리와 예방 활동

■ 에이즈 인식도 향상과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에이즈 예방교육과 홍보
 - 일반국민, 청소년, 군인, 동성애자, 교정기관, 보건교사,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의료인 등 세분화한 대상별 교육과 홍보 실시
-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 공중파, 케이블, 지하철, 인쇄매체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콘돔 사용 홍보 실시
 - 감염취약집단(동성애자,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 및 일반인에게 콘돔배포

■ 감염인 진단과 상담 활성화

- 익명검사제도를 통한 검사 활성화
-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한 에이즈 검사 및 상담 활성화
 - 동성애자 및 일반인 대상 상담소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상담과 자발적 검진 서비스 제공
- 에이즈 상담 및 검진요원 교육·훈련체계 구축

■ 감염인 지원

- 보건소를 통한 보건교육, 생활 상담, 전문진료 연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상환

- 감염인 쉼터와 지원센터 운영
 - 감염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숙식, 치료, 보건교육, 상담서비스, 건강증진,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감염인의 치료순응도 제고
- 외국인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원, 교육홍보, 상담제공으로 국내 에이즈 확산방지

■ 감염인 인권보호

- 감염인과 관련한 법·제도에 녹아있는 반인권적 용어를 정비,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와 사회 불평등으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보완
-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극복을 위한 대중 홍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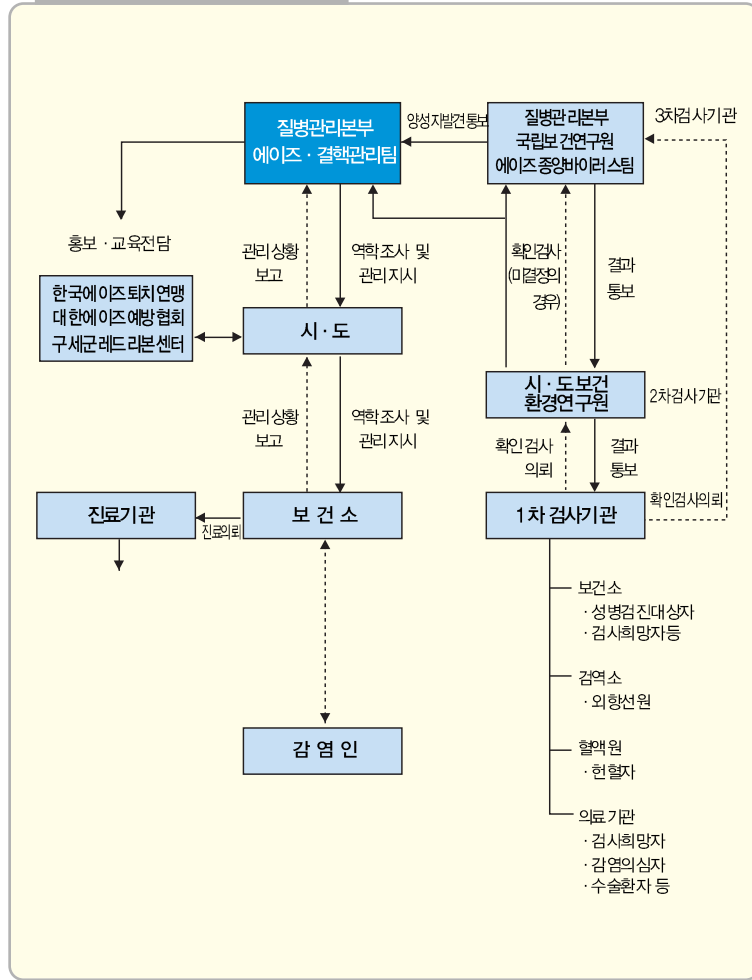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운영과 에이즈관리정책 수립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와 산하 4개의 영역별 분과위원회 운영
 - 국가 에이즈관리 전략 개발과 에이즈관리의 자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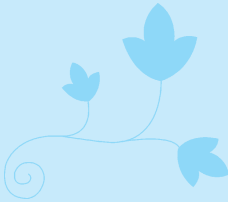
※ 에이즈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에이즈 관련 법·제도 분과위원회, 에이즈 검사 및 정도관리 분과위원회, 에이즈 감염인 조사·지원 분과위원회

- 위원회 자문을 통한 현실성 있는 에이즈관리정책 수립

HIV/AIDS관리행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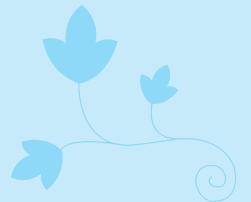


“에이즈,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Ⅱ. 언론보도 권고기준

- 
1.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
 3. 에이즈 취재보도 사례
 4. 권고 기준과 세부내용
 5. Media Tip



1 |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에이즈 인식

에이즈 감염경로 지식		
질 문 문 항	오답률	정답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38.9%	X
에이즈 감염인과 물건을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	29.1%	X
에이즈는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다.	37.0%	X
에이즈 감염인과 변기를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21.2%	X

〈 200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		
질 문 문 항	예	아니오
당신의 자녀가(없을 경우 '있다'고 가정)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24.0%	51.8%
같은 병원 같은 층에 에이즈 환자가 입원해 있다면 당신은 이 병동에 입원하시겠습니까?	24.8%	56.9%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쫓아내야 됩니까?	15.5%	57.4%
에이즈 감염인은 다른 사람과 격리시켜 수용시설에 보내야 합니까?	40.2%	40.5%
당신은 에이즈 감염인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32.9%	44.1%
당신의 가족 중에 에이즈 감염인이 생긴다면 집에서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까?	49.9%	26.9%
같은 동네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까?	49.9%	26.9%

〈 200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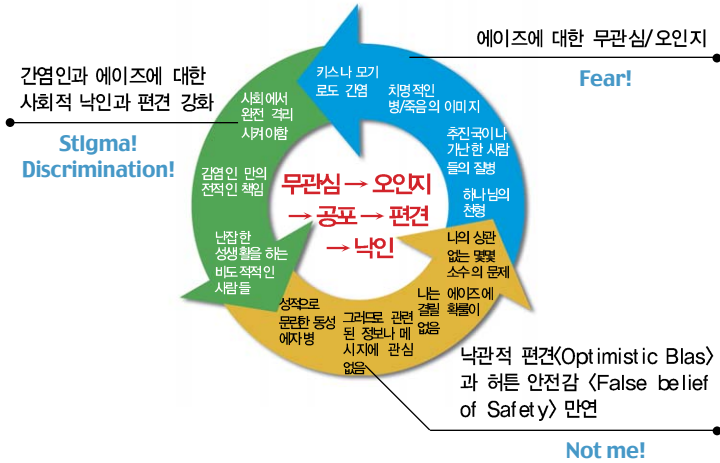
국가별 에이즈 차별의식

차별의식	벨기에 1993	프랑스 1992	한국 2005
에이즈 환자는 격리시켜야 한다.	4.7%	5.6%	40.2%
에이즈 치료병원을 이웃에 설립하는 것은 불가	17.0%	9.2%	15.5%
내 아이를 감염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허	33.0%	20.7%	51.8%

〈자료 Hubert et al.(1998:365)〉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2005년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우리 사회가 에이즈를 '나와는 상관없고', '나와 연관되어서도 안 되는' 일부 특수한 사람들의 끔찍한 병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서유럽 국가의 에이즈 차별의식 비교조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차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 에이즈에 대한 무관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오인지가 병에 대한 공포를 낳고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에이즈는 나와 상관없는 병이며 특수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HIV감염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에이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의 악순환



〈자료〉 국정홍보처 민간컨설팅 연구결과 (주)커뮤니케이션 신화, 2005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

건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에이즈 예방은 에이즈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에이즈 관련 언론의 역할

- 에이즈 관련 언론보도는 우리 사회의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

권의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일반국민과 보건의료인의 HIV감염인 등에 대한 인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언론은 국민들에게 에이즈 관련 내용 보도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에이즈 문제를 언론이 적극적, 선도적으로 다루어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에이즈 예방사업 및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 에이즈의 경제적 비용 추계 : 1인당 평균 생애비용 3.9억원
- ▶ 임금이 높은 3Q 40대에서 근로능력감퇴,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조기사망으로 인한 간접비(능력 감퇴 및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손실) 비율 상승
- ▶ 생산성 높은 인구집단에서 간접비 비중이 높은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에이즈는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 유행률 일정 수준 이상 → 향후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인해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
- ▶ '에이즈 예방 = 사회적 비용손실 및 노동력 상실방지로 국가발전에 기여

※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2004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 양봉민

- 국제적인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언론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기여해야 하며, 따라서 '에이즈' 관련 기사를 자극적이기보다는 진지하고 바람직한 관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론은 에이즈 관련 정부의 정책 활동 등을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판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합니다.

3 | 에이즈 취재보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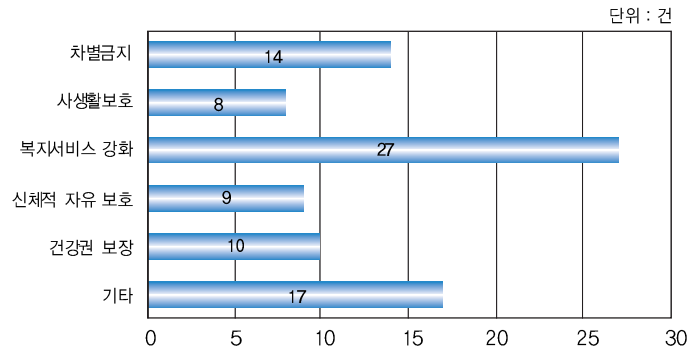


3-1 언론의 에이즈 취재보도 유형

에이즈와 관련한 사건위주의 보도내용과 자극적인 단어사용은
편견과 차별을 심화합니다.

■ 에이즈 관련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과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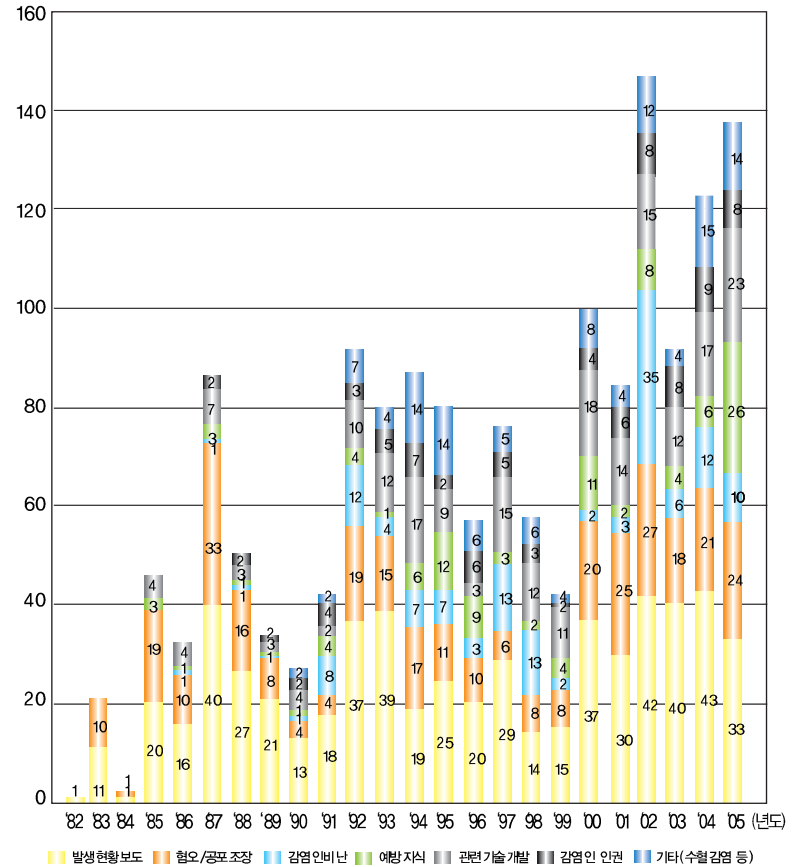
■ 일간지에서 제기한 영역별 HIV감염인 인권옹호기사 분포(1982년~2005년)



〈자료〉 HIV감염인/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일간지의 연도별 에이즈 관련기사 유형 분포(1982년~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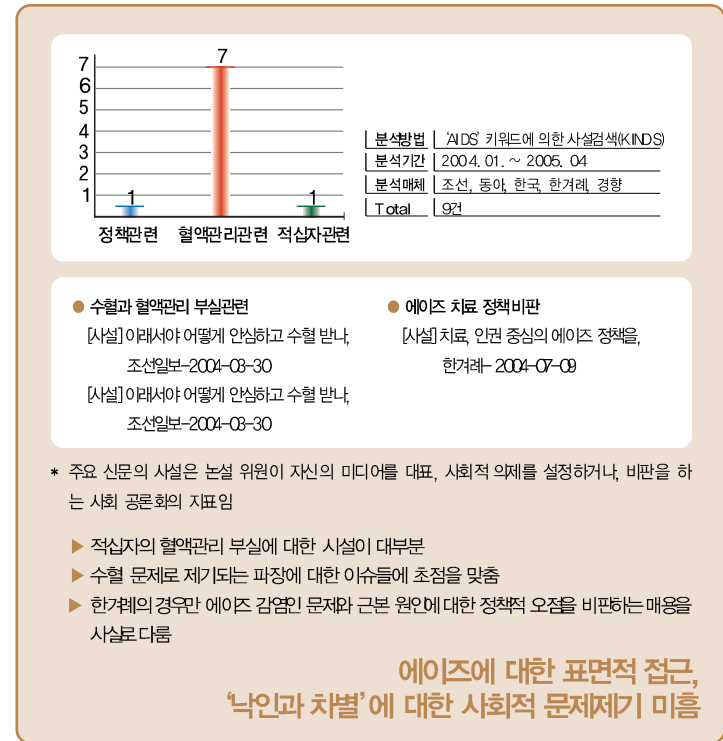
단위 : 건



〈자료〉 HIV감염인/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 HIV감염인 및 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주요일간지 기사검색을 통해 에이즈 관련 보도내용과 경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2년 “미국 등에 미지의 괴질 크게 번져”라는 제목의 에이즈 관련 최초 보도기사가 나간 후, 주로 외국의 에이즈 발생현황과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다가 우리나라에서 HIV감염인이 최초 확인된 1985년을 계기로 관련 기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HIV/AIDS 발생과 관련한 단순사실 보도와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기사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분석대상 관련 기사 1,600건 중 5.4%인 86건만이 HIV 감염인의 인권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 주요 신문사설



〈자료〉 국정홍보처 민간컨설팅 연구결과 (주)커뮤니케이션 신화, 2005

- 또한 2005년 국정홍보처 민간컨설팅 연구결과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조사된 주요 신문사설의 내용은 수혈문제로 제기되는 파장에 대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에이즈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건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많은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를 단순 사건 소재로 여기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낙인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우리사회를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2 언론의 에이즈 취재보도 사례

01

ADS 공포, 珍島 ‘덜덜’, 30대 女환자 맘대로 활보...

전남 진도군 본섬의 한 평화롭던 마을 주민들이 요즘 ‘AIDS 공포’에 떨고 있다. 8일 진도군의 한 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IDS 환자라는 사실을 숙이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풀려난 30대 AIDS 환자(31.여) 때문에 마을 전체가 AIDS 감염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 AIDS 환자는 지난 3월 병세 악화로 형 집행이 정지돼 고향으로 왔다. 마을주민 ㅁ씨(73)는 “이미 몸에 반점이 확연히 드러날 만큼 병세가 진전된 AIDS 환자가 대중목욕탕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자신을 보고 쏘곤 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물려는 듯 덩비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ㅁ씨(여,39)도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이 외출을 꺼릴 정도”라면서 “동네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보건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모 등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AIDS 환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1주일에 한번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볼 뿐 격리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3. 05.09.)

-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공포’ 같은 막연히 부정적 단어를 에이즈와 관련지어 쓰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에이즈는 일상생활(대중목욕탕, 운동, 식사, 화장실 등)에서 감염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에게 감염경로에 대하여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보도내용에 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 에이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아무 설명 없이 인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사를 위해서 ‘반점=

에이즈와 같은 비전문적인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으로 격리치료를 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언론에서 선도하여 '격리치료'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ADS, 숨겨 결혼·출산/환자관리 허점/외항선원 부인 국가에 손해

AIDS(A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들에 대한 격리수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국에서 확인된 감염자들이 정상적인 건강인들처럼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은 AIDS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원을 숨겨줌으로써 감염사실을 모른 채 결혼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주변 관계자들까지 감염시키는 등 큰 문제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외항선원으로 취업생활을 계속하는 남성 감염자와 속아 결혼한 부인이 결혼 뒤 1년 8개월이 지나 아이까지 낳은 최근야 남편의 AIDS 감염사실을 확인, ADS 감염자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5일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문제의 피해자인 주부 이모씨(29·부산시 남구)는 지난 89년 5월 결혼한 남편 문모씨(32·외항선원)가 결혼 전인 89년 3월에 보사부로부터 AIDS 감염자로 확인됐으나 당국의 감염자 관리의 허술로 이씨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었다...[종합] (1991.03.05)

-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수용 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분들이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에이즈 관련 언론보도 내용 작성 시 사전에 에이즈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감염경로와 감염되지 않는 경우, 에이즈에 대한 국가정책과 법안 등)와 감염인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를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ADS 감염 의혹 29명 잠적/보건당국/의사회 통해 병원에 수배공문

여자 27명 남자 2명/거의 술집 등 유흥업 종사자/보건 최종검사 못해...관리체계 허점 노출

AIDS 반응검사서서 감염의혹을 받고 있는 29명이 무더기로 잠적해 당국이 소재파악에 나선 것으로 8일 밝혀져 AIDS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이 문서에 따르면 잠적한 29명은 10대가 1명, 20대가 18명, 그리고 30대가 7명 등으로 이중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27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술집종사자가 12명, 다방 9명, 이발소 5명, 미용실 1명, 무직 2명 순이다...[종합] (1991.12.09)

- 에이즈는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 특정 성적취향, 특정 직업군 등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HIV감염인/AIDS환자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잠적', '수배' 같은 범죄 대상 용어는 자제해야 합니다.
- HIV 검사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중적으로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언론의 지속적인 정보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04

● 에이즈환자가 강도 : "치료비 달라" 술집주인 흥기위협

서울경찰청 특수대는 31일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보균자임을 이용, 전에 일했던 술집주인을 흥기로 위협, 돈을 빼앗으려한 김모씨(34, 가명, 무직, 서울은평구 역촌동)를 공갈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일했던 경기도 파주군의 모레스 토랑 주인(30)을 찾아가 흥기를 들이대고 "너와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몸쓸 병에 걸려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위협,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작년 9월 혈액검사를 받은 뒤 지난 1월5일 보건사회부 방역과로부터 에이즈 양성보균자로 판명 받았다. (199204.01)

● 절도혐의 ADS 환자/도주 하루 만에 붙잡혀

절도 혐의로 형사 계류 중인 피의자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DS) 양성 환자로 판명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뒤 2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음이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95병동 11호실에 입원 중이던 AIDS 양성반응 환자 김아무개(29)씨가 병실에서 빠져나갔다가 26시간 만인 이날 밤 10시 40분께 종로구 종로 3가의 어느 호프집에서 전화를 하다 붙잡혀 다시 병원 쪽에 입원 조치됐다. (1996.04. 27)

- 사건·사고의 초점을 'HIV감염인/AIDS환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소수 감염인의 문제가 감염인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보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작성은 HIV감염인/AIDS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한 병실의 호수 등을 보도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ADS 공포 등 신경쇠약증세 주부, 두 딸 데리고 자살

지난28일 오전11시20분쯤 수원시 화서2동 344의8 우람아파트 14동 이모씨(35·교사)집 안방에서 평소 신경쇠약증세를 앓아오던 이씨의 부인 김명진씨(29)가 연탄불을 피워 딸 주홍(3) 주영양(1) 등을 죽게 하고 자살한 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김씨가 지난 86년 큰딸 주홍양을 낳은 후 신경통과 신경쇠약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TV에서 방영된 AIDS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입술이 부르토고 기운이 없는 것이 자신의 증상과 같다며 남편 이씨를 졸라 지난26일 보건소에서 AIDS감염여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이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1990.03.02)

● 60대 부부 에이즈자살극 : 수혈감염 남편이 전염아내 숨지게 도와

수혈과정에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60대 남자의 부인이 남편과 함께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다 자신도 에이즈에 감염되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했다.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충남 온양시 m여관 283호실에서 이모씨(57 여 서울 마포구)가 미리 준비한 침대 시트 끈으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중략] 정씨의 감염사실은 정씨에게 수혈해준 30대 남자가 작년 6월 중순 콩팥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판명돼 드러났다. 정씨부부는 그 후 자식들과의 접촉도 피한 채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199207.03)

● 수혈로 ADS 감염 : 20대 비관 자살

15일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 수유2동 이모씨(49) 집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비관해온 이씨의 아들(21)이 화장실 문고리에 목매 자살했다. 자살한 이씨의 아들은 선천성 내장혈관파열증을 앓아오다 지난 86년 12월 서울 모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현혈한 김모씨(30)의 피를 수혈 받았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자주 "죽어버리겠다"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199204.17)

-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HIV감염인/AIDS환자의 정신적 고통(자/타의에 의한 사회적 격리,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HIV감염인/AIDS환자의 극단적인 삶을 보여주는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는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주지 못하며, 감염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희망적이고 밝은 내용의 기획 기사를 실어줌으로써 HIV감염인/AIDS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헌혈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30대 남성 에이즈(AIDS)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고의로 헌혈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일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는 30대 초반의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헌혈한 사실을 확인, AIDS 예방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에이즈가 치료됐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헌혈했다”고 진술한 뒤 다시 잠적했다. A씨는 헌혈 과정에서 헌혈지원자의 병력(病歷)을 전산 조회하지 않고 에이즈 감염 여부를 구두로 묻는 의례적인 문진(問診) 절차로 인해 손쉽게 헌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락]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는 A씨가 지난 97년쯤 동성연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A씨는 “중국에서 칼을 맞아 수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에는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보복성’ 헌혈과 성관계를 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으며, 2002년에 도 20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수백 차례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4.08.02]

- 과거에는 헌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헌혈 때 각종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으나, 97년 3월부터는 ‘HIV 확인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염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헌혈을 통한 검사결과 통보를 금하도록 했습니다.
- 확인검사를 목적으로 항체미검출기간에 헌혈을 했을 경우 수혈감염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감염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므로, 언론에서 헌혈과 관련하여 익명검사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 관련 내용들을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에이즈 감염공포로 정신병원 입원

말레이시아의 여성 간호사가 2개월 전 쿼라룸푸르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입원했다.

23일자 일간 선은 간호사노조 사무국장 앤 쿠 여사의 말을 인용, 범인이 성폭행당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피가 묻었다는 주사기로 간호사의 목을 찔렀고 간호사는 감염 우려 때문에 신경쇠약에 빠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종락] (2001. 7. 24.)

중국은 지금 '에이즈테러' 공포

중국 톈진(天津) 시 주민들이 밤낮으로 에이즈 공포에 떨고 있다.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사기로 사람들을 닳치는 대로 찌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어서다. 시 공안당국은 각 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 긴급통지문을 보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략]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항간엔 마을주민 80%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허난(河南) 성 상차이(上蔡) 현의 주민들이 정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루머를 퍼뜨렸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2002. 1. 21.)

-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에이즈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이 사건·사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HIV감염인과 AIDS환자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에이즈를 가까이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일반인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에이즈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운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에이즈와 관련한 사건·사고 외에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이즈 예방 캠페인 등에 관심을 갖고 취재보도 및 홍보의 역할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사, 어떨까요?

- HIV 감염인/AIDS환자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돕는 언론의 목소리

"에이즈와 18년, 아직 건강해요" [2005.12.05]

니콜라이 판첸코씨 그는 올해 53세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면 무척 놀란다. 판첸코씨는 18년 전인 1987년에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기 때문에 벌써 사망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만에, 그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웃음은 천진난만하며 땀이 있는 옷을 입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경찰이 된 판첸코씨는 23세 때 결혼을 했으나 13년 뒤 이혼했다. 아내 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국장에게 남편이 동성연애자라고 폭로했다. 당시만 해도 동성 연애는 최악의 반인륜적 행위였다. 그의 사례는 이내 러시아에서 80년대 최대의 스캔들이 되었다. 판첸코씨는 그해에 건강 이상을 느꼈다. 혈액검사를 받았더니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왔다. 모스크바 에 여행을 온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과 짧은 로맨스를 벌인 것이 원인인 듯 했다. 사람들은 경악했 다. 에이즈는 아프리카나 있는 질환으로 간주되던 시절이었다. 당국은 그를 모스크바 병원에 석 달간 입원시킨 뒤 4년 동안 강제로 투옥했다. 청문절차도 없었다. 교정당국은 다른 죄수들이 그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교정 당국은 그를 독방에 수감했고, 3년 3개월이 흘렀다. 그는 기자에게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독방은 무섭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근무자들은 내게 신문과 잡지를 가져다주었지만 다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감염될까봐 두려웠던 거지요. 저는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어요. 17일 동안... 결국 병동으로 보내주더군요." 출감 직후 판첸코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로 갔다. 좋아하는 도시였고, 국제 에이즈기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동안 거기 에서 일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에 한 프로젝트가 끝나자 판첸코씨는 '에이즈양성 및 에이즈환자 협회'를 설립, 회장에 취임했다. 이 단체의 취지는 에이즈 전염 실태를 연구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 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내는 것이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만 공식적으로 양성 환자가 3만5천명이나 있다. 대부분 지난 2000~2001 년에 감염됐다. 그는 환자들을 지켜보는 게 무척 괴롭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일부러 생 각을 차단해 버리지만 어쩔 수 없이 낙담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스스로 용기를 북돋운다.

안 그러면 협회가 봉쇄해 버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판첸코씨는 마흔 살 때까지는 성교에 관심을 많 이 가졌지만 오십대에 접어들고부터는 건강관리에만 주력한다고 한다.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많이 걷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활력 있게 살고 싶다. 80대까지 왕성하게 움직이고 죽고 싶다." 그 래서인지 프라우다는 판첸코씨가 러시아 에이즈 환자들 사이에서 '용기와 낙관주의의 살아있는 전 범'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금지 [2006.03.12]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근로 차별이 금지됩니다. 또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병가 규정 적용 등에서 같은 처우를 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과 인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기는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사람이 익명을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익명 검사제를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3천829명이며 이 가운데 721명이 숨지고 3천08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여론마당>에이즈 감염인 사회적 편견... 기본인권 보호 못받아 [2005.08.09]

에이즈는 B형 간염과 같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일종으로 에이즈와 B형 간염은 그 감염경로가 비슷하다. 즉 성행위 때나 산모-태아 간 수직감염 등이 대표적인 감염경로다. 더욱이 에이즈는 요즘 효과가 좋은 치료요법이 계속 나와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B형 간염과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최근 모 신문의 독자페이지에서 '에이즈 급증 정부 대책 미흡'이란 투고 글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것은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오해와 편견이 어떠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언급한 '격리'는 1999년 2월 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며 전 세계적으로 감염인을 격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에이즈 환자 미인대회 열려 [2003.09.08]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을 취지로 한 이날 대회에서 위를 한 크가갈렐로 은체테(31)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 존중이 확실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2년 전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고 현재는 젊음을 위한 에이즈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미모뿐 아니라 자신의 역경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여성들을 참가자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는 인구 180만 가운데 38%가 에이즈 환자가거나 바이러스 보유자인데도 바이러스 감염 교사 파면을 지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직원이 일하는 가게에서 쇼핑을 꺼릴 정도로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

지구촌 곳곳 "에이즈환자 차별 철폐를"... [2002.12.01]

유엔은 에이즈의 날에 앞서 전 세계 에이즈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live and let live' (살고 살리기)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의 피터 피오토 사무총장은 에이즈의 날 메시지를 통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에이즈 그 자체만큼이나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때 비로소 에이즈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도 이날 성명을 발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엠네스티는 특히 각국 정부에 에이즈에 관한 미신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춰 프랑스에서는 에이즈 운동가와 의사들이 1일 파리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 또 약 4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인도에서도 동부의 오리사주에서 1일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긴 플래카드를 제작해 주도 중심가에 전시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 플래카드에는 에이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구호와 함께 학생 등 10만 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에이즈 감염자인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도 1일 에이즈 운동가 수천 명이 특별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

중국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무관심을 비난하고 정부의 느장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린다. 5일 중국에서는 최초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다.

4 권고기준과 세부내용



4-1 에이즈 관련 취재보도 시 권고기준

에이즈 관련 보도는 지금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에이즈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자극적인 단어사용과 사건위주의 보도는 HIV감염인과 AIDS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이즈 관련 사건위주 보도(예: 격리, 자살, 공포 등)와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감염인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게 됩니다. 에이즈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일반국민에 대한 에이즈 인식과 감염인/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에이즈 관련 보도에서 아래의 권고기준을 충분히 고려한 후 에이즈와 관련하여 취재보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01 HIV감염인/AIDS환자의 직업, 사회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와 감염인이 활동의 자유를 억압받았을 경우, 이를 적극 알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02 HIV감염인/AIDS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성(性)파트너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보도는 물론이고 취재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03 HIV감염인/AIDS환자를 그들의 감염경로(성접촉, 수혈감염, 마약주사 등), 성(性)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직업, 남녀노소 등을 따져 차별하는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04 에이즈를 '신이 내린 형벌', '천형'과 같이 비과학적인 비유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에게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찍거나 이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5 에이즈 감염확률이나 에이즈와 관련한 새로운 통계, 이론, 학술적 내용, 에이즈 치료제, 백신 개발, 에이즈 관련 국제 뉴스 등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보건당국과 관련 학회가 인정하는 에이즈 전문가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은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6 언론은 에이즈 또는 HIV감염인/AIDS환자 관련 보도 시 그 보도가 사회나 사회구성원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살핀 뒤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7 언론은 에이즈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보도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TIP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3조 3항(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4-2 에이즈 관련 취재보도 시 권고기준 세부내용

01

HIV감염인/AIDS환자의 직업, 사회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시각의 보도와 그들이 이러한 활동의 자유를 억압받았을 경우 이를 적극 알리고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 감염인/환자를 부당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동태를 살피거나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 정보 수집을 하는 일 등은 자제해야 하며, 적절한 취재보도로 감염인/환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02

HIV감염인/AIDS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성(性)파트너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보도는 물론이고 취재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 ☉ 감염인/환자를 취재할 때는 그가 사는 정확한 주소와 그의 구체적인 직장, 이름, 학교 출신 등을 묻지 않습니다.
- ☉ 방송 영상이나 신문 사진 취재를 할 때 감염인/환자의 허락 없이 감염인/환자 음성이나 신체의 특징적인 모습, 정면 얼굴을 결코 찍어서도 안 되며 이를 해당 매체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03

HIV감염인/AIDS환자의 감염경로, 성(性)정체성, 직업, 남녀노소 등을 따져 차별하는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 언론보도 시 감염인/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등을 특별히 따져 편견과 차별의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 감염경로(성접촉, 수혈감염, 마약주사 등)와 성(性)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따져 성행위로 감염된 사람, 특히 동성애로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도덕한 사람 등 인권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 감염인/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취재 또는 보도에서 그런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04

에이즈를 '신이 내린 형벌', '천형' 과같이 비과학적인 비유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에게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찍거나 이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에이즈는 바이러스(HIV)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신이 내린 형벌과 같은 비유는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중들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도 언론은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05

HIV 감염확률이나 에이즈와 관련한 새로운 통계, 이론, 학술적 내용, 에이즈 치료제, 백신 개발, 에이즈 관련 국제 뉴스 등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보건당국과 관련 학회가 인정하는 에이즈 전문가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은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에이즈 관련 보도 시 통계, 확률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보도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콘돔 착용 없는 행위 등)를 감염인/환자와 가졌을 때 HIV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자칫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제공하여 오해와 오인자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언론은 에이즈 치료제나 백신이 당장 개발되어 해당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정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독자/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 에이즈 치료제와 신약개발과 관련한 외국 언론의 보도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외신이라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은 뒤 보도 여부, 보도 크기, 보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6

언론은 에이즈 또는 HIV감염인/AIDS환자 관련 보도 시 그 보도가 사회나 사회 구성원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살핀 뒤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언론인이 에이즈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거나 다른 언론인보다 일찍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할지라도 그 보도가 사회나 사회 구성원에게 끼칠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여 보도 여부, 보도 크기, 보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내용이나 사회나 사회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끼칠 내용의 보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07 언론은 에이즈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사건 위주의 보도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 에이즈에 대한 과장보도나 왜곡보도는 감염인/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보도가 중요합니다.
-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사건위주의 보도 등은 감염인/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친지 등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강한 벽을 만드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 감염인/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부추기며 인권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언론은 에이즈 관련 보도를 할 때 필요 이상 과장보도나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8 언론인은 HIV감염인/AIDS환자를 범죄인으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인/환자가 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으로 떠나거나 잠적한다고 해서 이들을 '탈출', '도망'과 같이 범죄인을 다룰 때 사용하는 용어를 기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 HIV감염인/AIDS환자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장소를 이탈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도내용이 에이즈라는 '질병'과 관계가 없는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는 사건 대상자(감염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09 에이즈와 관련한 오보는 즉시 이를 바로 잡아 독자나 시청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언론사 내부에서 오보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즉각 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크기의 보도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에이즈와 관련한 오보는 신속 정확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다루어 주도록 하고 그 크기도 애초 오보 크기와 비슷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 언론인들이 HIV감염인/AIDS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접촉할 때는 직접 접촉하거나 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반드시 보건당국이나 보건소, 에이즈 관련 단체(구세군레드리본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감염인/환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먼저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후 하도록 하며 이 때 감염인/환자의 인권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염인/환자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에이즈 관련 단체(구세군레드리본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등을 통하여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염인/환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만났을 때에도 노출하기를 꺼리는 일에 대해 집요하게 묻거나 알리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감염인/환자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경우 그의 신분이 주위에 알려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5 Media Tip



- * HIV감염인/AIDS환자들의 감염경로, 성 정체성을 부각하여 보도하기
- * HIV감염인/AIDS환자와 그 가족, 성 파트너의 신상명세 취재·보도하기
- * 비과학적인 내용이나 일반인의 증언을 의학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하기
- * HIV감염인/AIDS환자가 스스로 증언한 사생활 중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보도하기
- * 에이즈 관련 학술 내용, 치료제와 백신 관련 내용 중 전문가 자문이 없는 내용 대서특필하기
- * 에이즈에 대한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단어 사용하기
- * HIV감염인/AIDS환자나 감염 의심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용어 사용하기



- * HIV 감염확률이나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다루기
- * 에이즈에 대한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다루기
-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 소개하기
- * 감염인의 활동과 인권침해의 경우를 알리고 바로잡기
- * 에이즈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 * HIV 감염인/AIDS환자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의 보도하기
- * 에이즈 관련 오보 즉시 정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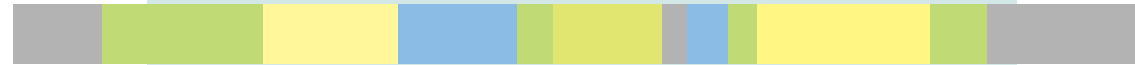
맺음말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는 대국민 에이즈 예방과 HIV감염인/AIDS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이자, 국민과 정부 간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에이즈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주어 HIV감염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언론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는 언론인이 에이즈 관련 취재와 보도 시 참고하여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의 보도내용이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췌로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가 우리나라 에이즈 언론 보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HIV감염인/AIDS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록



잘못 알고 있던 에이즈 상식

그동안 궁금했던 에이즈 이야기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에이즈 즐겨찾기



잘못
알고 있던
에이즈 상식



HIV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알 수 있다??



HIV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에이즈 초기 증상에 대한 글을 읽고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추측하고 자살을 시도한 여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감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진 몇 가지 것들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나 질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징적인 증상들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에이즈=붉은 반점'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피부질환을 에이즈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IV감염 여부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성접촉으로도 반드시 에이즈에 걸린다??



감염인과 콘돔 등 보호장치 없는 삽입식(질과 음경, 항문과 음경) 성관계를 1번 가질 때 HIV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감염인과 한번 성관계를 가졌다면 거의 100% 감염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 성접촉을 통한 HIV전파 가능성은 의외로 낮아 0.1~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HIV는 다른 질병에 비해 감염확률이 낮은 편이고 일상생활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지만, 성관계가 가장 많은 감염분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단 한 번의 경우로도 감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이즈는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HIV 감염 여부를 알려준다??



헌혈자에게 HIV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던 제도는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헌혈된 혈액에 대해 HIV 검사를 실시해서 에이즈인 것으로 반응이 나온 혈액은 폐기처분 합니다. 물론 HIV 양성 반응 혈액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보건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단순히 HIV 감염여부를 알기 위한 헌혈은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 병·의원에서 HIV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 정기검진에 HIV 검사가 있다??



현재 직장 정기검진에는 의무적인 에이즈 관련 검사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정기 건강검진으로는 HIV 감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직장 정기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들어 있다면 검사결과는 본인과 상의하여 통보가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HIV 검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격리보호조항이 있다??



정부는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HIV감염인/AIDS환자는 법적으로 격리할 수 없습니다. 초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법에서도 격리수용 등이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감염인의 인권 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에이즈 홍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인도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심터 등을 통해 감염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에이즈 이야기

HIV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HIV 검사는 체내에 HIV 항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체내에 HIV항체가 있다는 것은 항원인 HIV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항체를 만들어서 HIV에 대항합니다. 적은 양을 혈액 샘플로 이러한 항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에이즈 검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HIV(항체)검사입니다.

검사시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12주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IV 항체는 감염 직후 또는 약2주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6주 정도면 혈액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체 형성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일정한 양 이상이 되어 혈액검사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정확한 시기는 12주입니다. HIV 항체가 체내에 생성되어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시기를 항체미검출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실시된 HIV항체 검사 결과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결과

HIV 항체 검사 결과 음성(-)은 체내에 HIV 항체가 없는 것으로 항원인 HIV가 체내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성(+)은 HIV에 반응하는 항체가 있다는 뜻으로 HIV에 감염되었음(일반적으로 '에이즈'에 걸렸다는 의미)을 뜻합니다. 만약에 6주가 지나기 전에 의뢰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아직 항체미검출기간에 있기 때문에 나온 음성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일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HIV검사는 그 외에도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관마다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선별검사라 하며 반응에 민감한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위양성(음성인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 결과가 나온 검체는 반드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HIV 확인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검사는 다양한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로 최종 HIV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는 분은 첫 선별검사에서 양성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더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IV 감염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HIV 감염인으로 확정되면 보건당국에 보고되며,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 감염인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담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감염 사실도 본인 이외에는 직장, 친지, 가족에게도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면담 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단지 6개월에 한 번 관찰 보건소를 통해서 정기적인 면담(발견초기 이후는 자율 면담)과 본인 동의 아래 면역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역감사에서 감염인의 면역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에서는 지정치료병원을 소개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에서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감염인이 만약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 원본과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도 및 관할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관할 진료기관과 협의하여 본인부담분의 산납이 어려운 감염인(환자)에 대해서는 후불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진료비청구계좌는 직접 해당병원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여성은 어떻게 출산할까??



임신부가 HIV 감염인일 때 장차 태어날 아기가 감염될 확률은 25~35% 정도입니다. 이것은 임신 중과 출산 시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확률입니다. 만약 감염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신 중에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고, 출산 때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가 산모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조치한다면 감염될 확률을 2~10%로 낮출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수직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방법

- 임신부의 항바이러스제의 복용
- 제왕절개로 분만 유도
- 모체의 낮은 바이러스 농도와 높은 면역세포 수치의 유지
- 기회질환의 적극적인 예방
- 성병의 적극적인 치료
- 정기적인 산전 진찰
- 산생아의 항바이러스제 투여
- 초유나 모유 수유하지 않기

주변에 감염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차별이 만연하여 혹시라도 감염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HIV 감염인/AIDS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현역 복무 중에 HIV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복무를 면제받습니다. 기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을 갈 경우엔??



우리나라에서는 체류외국인이 HIV 감염사실이 보건당국에 확인되면 출국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HIV 감염인/AIDS 환자의 입/출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여행이나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HIV 감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HIV 감염인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HIV 감염인/AIDS 환자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작

대상

[기획서] 콘돔사용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당당콘돔」



콘돔 사용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명분 만들기

무엇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콘돔의
의미 변화 필요



Eros & Psy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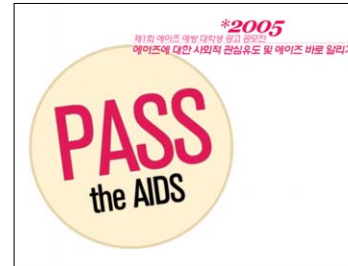
속해적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로스는 프쉬케(Psyche)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프쉬케는 그리스어로 정신, 정수를 뜻하는 단어다. 속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만남과 해피엔딩



프쉬케, 곧 정신과 정음이 없는 에로스에게서는 떨어지려고 하는 한 여인 여인이 원하는 것은 속해적 사랑인 에로스만이 아닌 프쉬케와 함께한 에로스를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닐까?

금상

[기획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 및 에이즈 바로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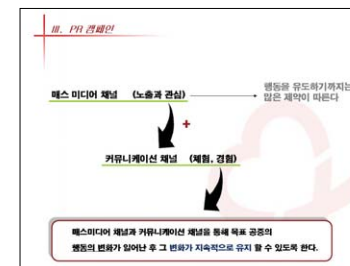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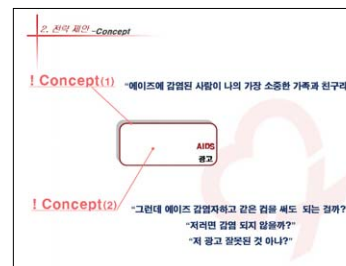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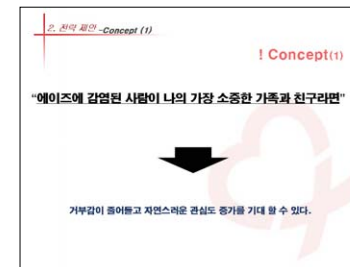
금상

$[0, \frac{1}{2}]$ it's not diffe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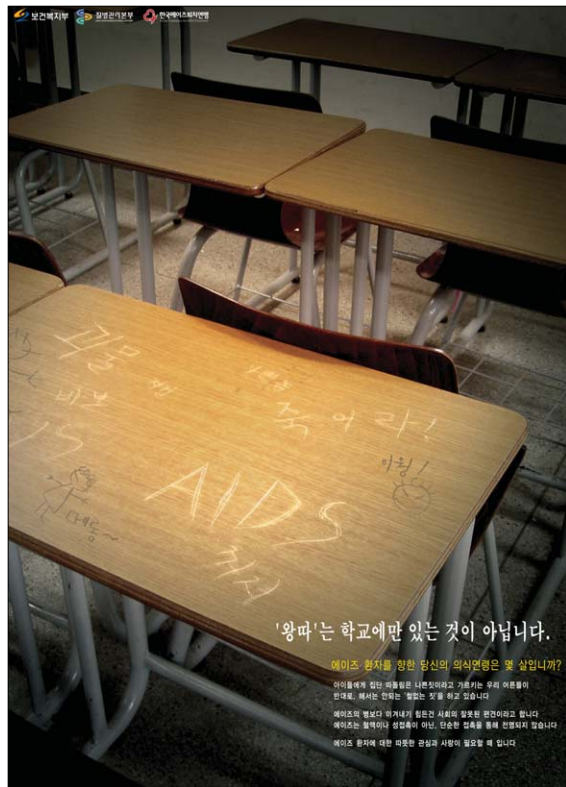
은상

[기획서]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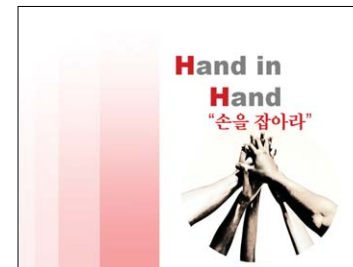
은상

[인쇄] '왕따'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상

[기획서] Hand in Hand (감염인 편견 · 차별배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상

[인쇄] 안전한 이플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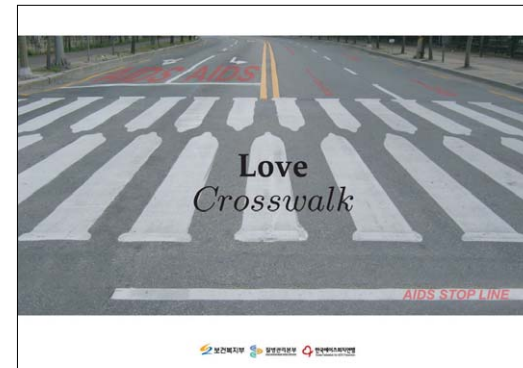
Finalist

[인쇄] 콘돔사용촉진 캠페인

지금 이 순간...콘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Love Crosswalk



입선

[인쇄] 콘돔사용촉진캠페인

불편하다고 입지 않으실 겁니까?



끼워야 안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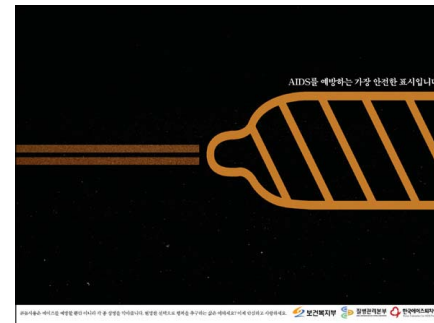
입선

[인쇄] 콘돔사용촉진캠페인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표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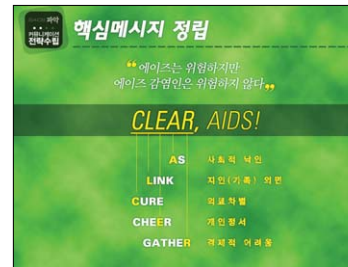
대상

[신문] 우리는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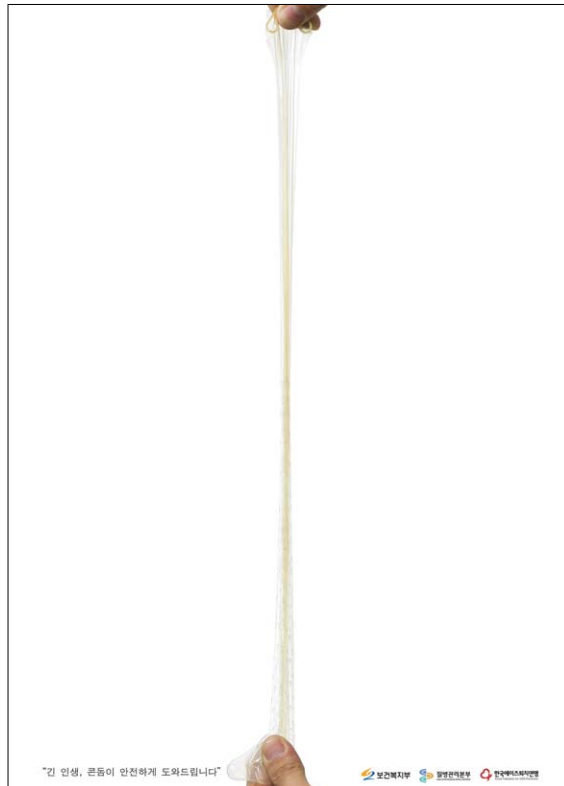
금상

[기획서]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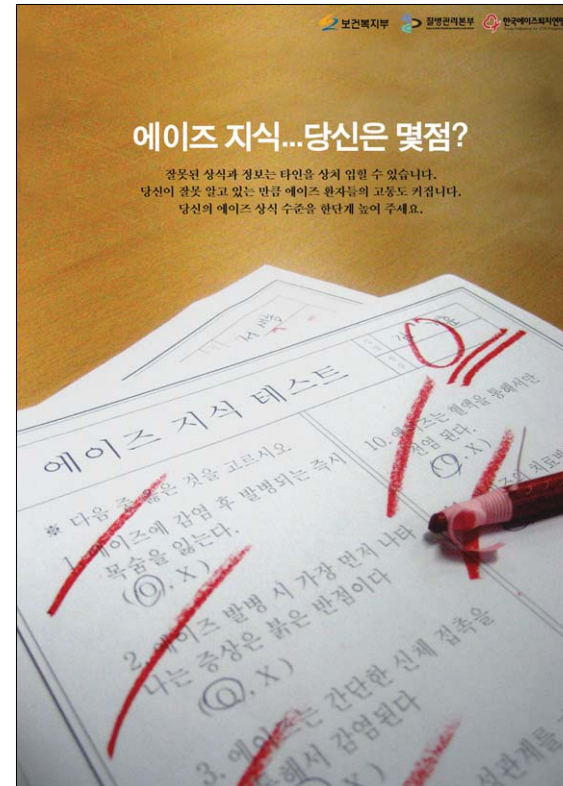
금상

[포스터] 긴 인생이한테



은상

[포스터] 에이즈 지식...당신은 몇점?



은상

[집단] 에이즈 예방, 공중전화 찾는 것보다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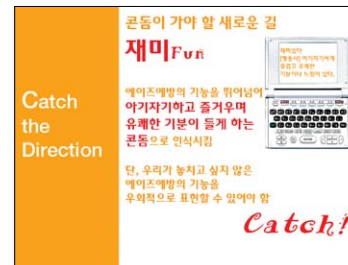


에이즈 예방,
공중전화 찾는 일보다 쉽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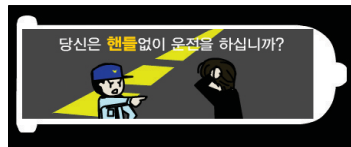
동상

[기획서] Catch! 쉽고 재미있는 콘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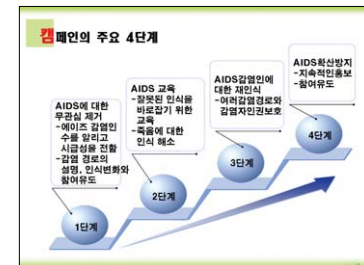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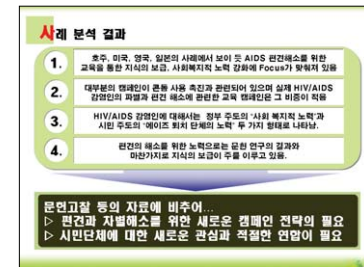
등상

[인터넷] 콘돔은 기본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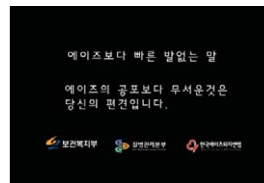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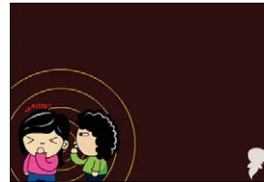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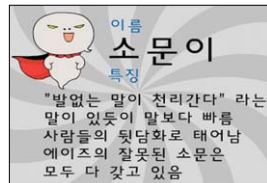
입선

[기획서]에이즈 감염증에대한편견·차별해소를 위한 학교교육인광교범내선전략



입선

[인터넷]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



입선

[신문] 에이즈 예방책에는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입선

[신문] M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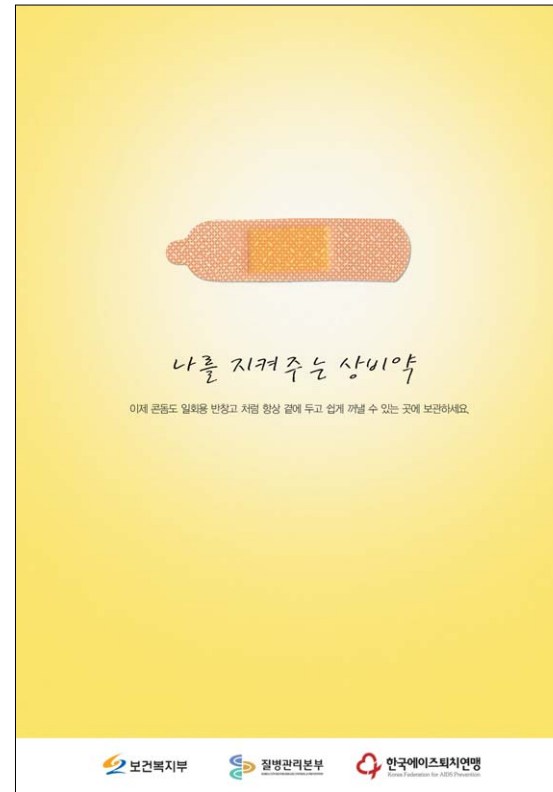
입선

[신문] The necessities of love! (사랑의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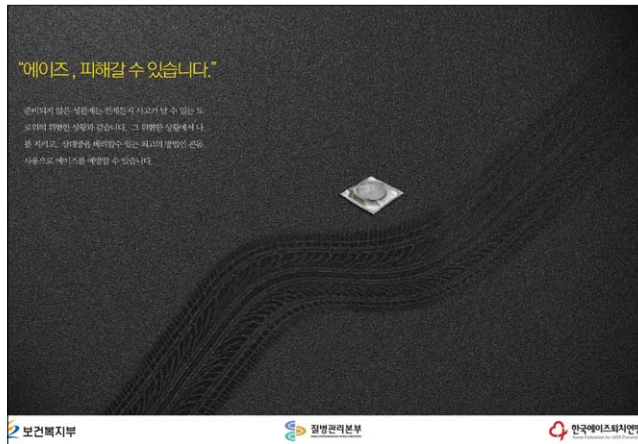
입선

[신문] 나를 지켜주는 상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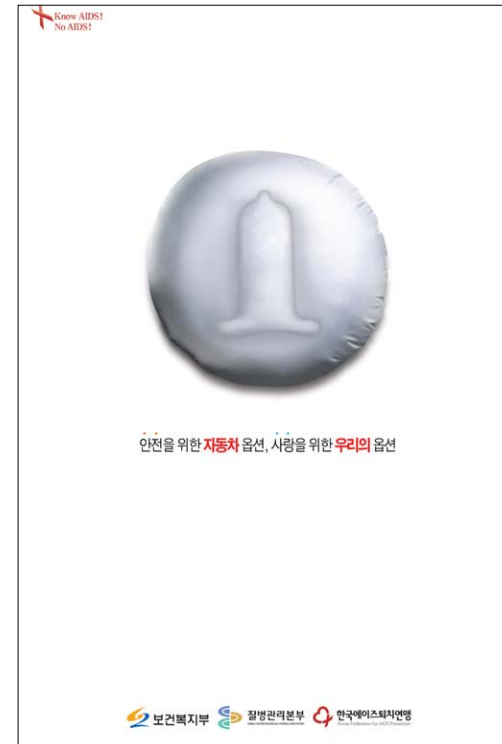
입선

[신문] **에이즈, 피해할 수 있습니다**



입선

[신문] **안전을 위한 자동차 옵션, 사랑을 위한 우리의 옵션**





에이즈'즐거'찾'기

에이즈 관련 국내 단체 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참여복지 구현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여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보건·복지요원의 훈련,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전염병의 전파 방지, 효과적인 예방, 진단, 치료법의 개발,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활동 수행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관리의 중추기관입니다. 에이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에이즈·결핵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이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국내 현황 확인 가능

[에이즈·결핵관리팀 02-380-1442,3]

+ 전염병 정보망 dis.cdc.go.kr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염병 별 정보, 전염병 통계 등 최신의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에이즈 관련 최신의 통계자료도 확인 가능

+ 에이즈 정보망 aids.cdc.go.kr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는 어떤 병이며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보건소 및 기타기관에서 HIV/AIDS를 담당하는 전문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HIV/AIDS 감염인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이즈 정보망'을 개설·운영

+ 에이즈 정보센터 www.aidsinfo.or.kr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에이즈 정보 포털 사이트

+ 구세군레드리본센터 www.aidscore.or.kr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대표전화 02-720-9527]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www.aids.or.kr

HIV감염인/AIDS환자, 보건교사, 군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과 감염인을 위한 쉼터 및 각종 자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대표전화 02-2675-7775]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www.kaids.or.kr

동성애자, 외국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교육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콘돔무로배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대표전화 02-747-4071]

+ 한국감염인협회 www.kapf.org

대표적인 감염인 자조모임 단체 커뮤니티로 에이즈 관련 뉴스, 건강정보, 복지정책, 자활정보, 상담코너 등을 운영

+ love4one www.love4one.com

순수 HIV감염인/AIDS환자 커뮤니티로 에이즈 관련 뉴스, 건강정보, 상담, 대화방 등을 운영

+ KANOS www.kanos.org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의 약자로 하나되는 HIV감염인/AIDS환자들의 네트워크로 감염인들의 연대, 권익보호 및 능력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감염인 관련 단체

+ K-plus www.k-plus.org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감염인 자조 모임, 상담, 에이즈 상식, 치료 및

검사 정보, 상담 서비스 제공

+ positive lives www.positive.or.kr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에이즈 개요, 치료 및 검사, 자활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의 정보 제공

+ 대한감염학회 www.ksid.or.kr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감염성 질환의 하나인 HIV/AIDS 진단, 치료, 예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학회

+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활동

+ STA www.sta1318.or.kr

십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에이즈 지식, 예방 정보를 가공하고 수록해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에이즈예방 사이트

+ 성병정보센터 www.stdinfo.net

에이즈를 포함해 모두 15가지의 성병에 대한 증상 및 치료에 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콘돔 사용법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에이즈 관련 국외 사이트

+ UNAIDS www.unaids.org

유엔에이즈기구(UNAIDS)는 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1996년 1월 창설된 UN산하의 에이즈 전담기구. 에이즈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영향과 결과, 보건문제, 경제개발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에이즈예방 사업을 펼치기 위해 UNDP, UNESCO, UNFPA, UNICEF, WHO, World Bank, ILO 등 7개 기관의 협력체제로 운영.

+ UNDP www.undp.org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제3세계국가들 개발에 에이즈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 WHO www.who.int

세계보건기구의 홈페이지. 모든 인류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WHO 현장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복지(well-being)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음. 전 세계 190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

+ UNIFEM www.unifem.org

국제연합 여성발전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으로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양성평등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 가난의 여성화를

저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고, 여성과 소녀들의 HIV/AIDS 문제에 대처하고, 전쟁이나 평화시를 망라하여 양성 평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만들어 가는 사업에 집중.

+ ICW www.icw.org

여성 감염인을 위해 여성 감염인이 조직한 국제 네트워크로서(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AIDS) 여성 감염인의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되찾고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 GNP+ www.gnpplus.net

감염인의, 감염인을 위한 국제 에이즈 네트워크로서(The 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IAS www.ias.se

국제에이즈협회(International AIDS Society)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에이즈회의의 주관 단체로서 에이즈의 과학·임상실험과 윤리문제를 비평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인을 위한 에이즈 교육에 주력하는 활동 전개.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에이즈 문제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제회의를 통해 과학, 공

동체, 리더십 간의 상호작용으로 국제적인 에이즈 대응 전략의 변화를 위한 지식을 생산.

+ AEGIS www.aegis.com

AEGIS는 66개국의 32,000개 전자게시판과 연결되는 FidoNet과 인터넷 통신을 함께 구축하고 에이즈로 인해 고통 받거나 고립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나은 간호와 예방, 치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의학정보에서부터 최신 뉴스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와 대화장치를 제공.

+ CDC-Division of HIV/AIDS Prevention(DHAP) www.cdc.gov/hiv/dhap.htm

美 질병통제센터(CDC)의 HIV/AIDS 정책은 지역과 주,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HIV 감염을 예방하고 HIV로 인한 질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 Information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www.icrw.org

ICRW는 여성의 활발한 참여 아래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 각 지부가 속해있는 국가의 정부 및 다국적 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 포럼에 전문가를 참석시키거나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료 출판과 정보 교환 프로그램 실시.

+ The BODY www.thebody.com

The BODY는 건강정보회사 BODY Corporation

이 운영하고 있는 HIV/AIDS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건강관련 우수 사이트로 선정될 만큼 풍부한 자료와 최신의 정보 수록.

+ AIDS.org www.aids.org

에이즈 교육, 에이즈 인식 증대, 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을 목적 활동하고 있으며, HIV/AIDS에 대한 방대한 정보 수록.

+ HIV/AID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www.fhi.org/en/hivaids/index.htm

FHI(국제가족보건협회)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에이즈와 성병의 확산을 막는 프로그램을 실시.

+ HIVpositive.com www.HIVpositive.com

HIVpositive.com은 말 그대로 HIV 감염인들을 위한 종합사이트. 감염인들에게 종합적이고 방대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 IAPAC www.iapac.org

국제 에이즈 전문의사 협의회(IAPAC)는 에이즈의 최신 치료동향과 백신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

+ 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www.whitehouse.gov/nap/aids.html

미국 내의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참고문헌 및 자료

- * 〈에이즈 엑스 화일〉 안종주, 학민사, 1996
- * 〈전염병의 문화사〉 아노 카렌, 사이언스북스, 2001
- * 〈은유로서의 질병〉 수전 손택, 이후, 2002
- * 〈건강과 질병의료의 문화분석〉 마사 루스토노 등, 한울아카데미, 2002
- * 〈AIDS 전망과 홍보정책 보건복지부 방역과 1996
- * 〈AIDS 감염인의 인권과 정책방향〉 국회인권포럼 제4회 정책 심포지움, 1998
- * 〈언론오보 사례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2
- * 〈에이즈 상담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2
- * 〈전 국민 성행태 및 에이즈 인식연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3
- * 〈HIV/AIDS 진료가이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감염학회, 2004
- * 〈상산업 종사여성을 위한 HIV/AIDS 예방교육 매뉴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 2005
- *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HIV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2005
- * 〈HIV/AIDS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2006
- * 〈의료기관 상담매뉴얼〉 질병관리본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용역, 2006
- * 〈제7회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 - 에이즈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 보건복지부, 2004
- * 〈에이즈 취재보도 준칙 제정에 관한 제언〉 안종주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보건학 박사), 2005
- * 국정홍보처 민간컨설팅연구결과 〈에이즈 예방홍보의 전략적 실행방안〉(주)신화커뮤니케이션, 2005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제작 자문 및 검토

- + 05년 7월 안종주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원고작성 『에이즈 취재보도 준칙 제정에 관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작준비
- + 자문 및 검토
 - * '05년 제1차 에이즈 교육·홍보분과위원회 검토(2005. 7. 14)
 - * '05년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검토(2005. 7. 28)
 - * '06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 검토(2006. 2. 28)
 - * 제작 준비팀 구성 및 운영
 - ☞ 1차 실무회의(2006. 4. 17)
 - ☞ 2차 실무회의(2006. 7. 3)
 -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의학신문, 노컷뉴스 기자 검토(2006. 9. 6)
 - * HIV감염인 검토(2006. 9. 7)
 - * '06년 에이즈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자문 및 검토(2006. 9. 26)
 - * '06년 에이즈 교육·홍보 분과위원, 제작 준비팀, 안종주 전 한겨레 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최종 검토(2006. 10. 12.~16.)

『연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제작 및 편집

- + 김화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팀장)
- + 남정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연구관)
- + 권윤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연구사)
- + 이윤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연구원)
- + 석지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연구원)
- + 안종주 (국민건강관리공단 상임이사,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 +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 +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 + 김병선 (구세군레드리본센터 소장)
- + 유은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과장)
- + 유승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소장)

“에이즈,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2006년 10월 인쇄

2006년 10월 발행

발행처 질병관리본부

발행인 오대규

발간등록번호 11-1460736-000018-01

내용 및 배포문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02-380-1442~3)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에이즈 정보망(<http://aids.cdc.go.kr>)

에이즈 정보센터(<http://www.aidsinfo.or.kr>)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